

대도시 보건소 방문보건 관리 현황과 정책 과제

유호신(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)

황라일(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강사)

본 연구는 대도시를 대표하는 서울시의 25개 보건소 방문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방문간호 관리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현안 정책 과제를 도출하여 방문간호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은 서울시 보건소 방문간호팀장과 방문간호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토의와 기존 문헌을 토대로 설문지 초안을 개발한 후 방문간호사 전수를 대상으로 2002년 9월 초순부터 10월 중순에 조사를 완료하였다.

분석결과 방문간호사들은 비교적 고연령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직급과 일천한 방문간호업무 경력을 갖고 있었다. 방문간호대상자 특성은 여성(60.1%)과 기초생활보호대상자(78.5%)가 대부분이었으며, 고혈압(13.7%), 당뇨(13.4%), 뇌졸중(13.4%), 관절염(13.2%), 및 치매 환자를 포함한 정신질환(12.2%) 등의 만성질환자였다. 방문간호사 1인당 평균 357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있었고, 일일 평균 5.4가구를 방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.

방문간호 관리가구의 분류 결과, 방문간호사 1인당 평균 집중 관리군은 약 23가구, 정기관리군 81가구, 감시/추후관리군 199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, 방문간호사 1인당 방문 빈도는 집중 관리군이 월 평균 2.4회, 정기 관리군이 월 평균 1.4회, 감시/추후 관리군은 년 평균 4.1회로 나타났으며, 지역사회 방문간호대상자 특성에 적합한 분류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였다.

방문간호사업 관리상 가장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 것은 '방문간호 담당인력 부족' 이었고, 그 다음으로 '방문간호 업무가 아닌 타 업무 부과' (13.4%), '복지와의 네트워킹 부족' (13.2%), '전산프로그램의 비효율적 운영' (12.4%) 등의 순이었다. 이와 같은 현 실정에 서 방문간호사업 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 정책과제는 '방문간호 인력의 적정 업무량 추계 및 효율적인 업무 부과' 가 37.5%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'방문간호 수요에 근거한 적정

방문간호 인력 배치' (18.2%), '방문간호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 유지' (16.0%), '방문간호 업무의 명확한 표준(standards) 제시' (14.8%), '의료비 지원 업무 등 방문간호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하향식 행정업무 위주의 업무 부과 배제' (13.8%) 등의 순으로 도출되었다.

연구결과에 기초한 제언은 첫째, 보건소 방문간호부서의 근무 여건 등을 개선시켜 장기적이고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인력 충원 시에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보완하여 방문간호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. 둘째, 현재 4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방문간호 관리대상군의 분류 기준을 재 검토하여 방문횟수 외에도 방문간호대상자의 건강문제나 간호문제 및 간호서비스의 난이도(complexity) 등을 함께 고려하면서도 방문간호사업 특성에 적합한 대상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표준화된 분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, 표준화된 방문간호대상 가구군 분류 기준을 적용하여 전국 보건소 방문간호사들이 사용토록 하고, 제공 된 방문간호 자료를 대상가구 군별로 데이터베이스(DB)화 하여 방문간호 수요·공급 추계는 물론 적정 방문간호서비스 업무량 추계는 물론 방문간호서비스 질 관리에 활용되어야 한다. 넷째, 대도시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방문간호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문간호사업모형 제시와 인력개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및 방문간호업무의 표준화 작업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.